

이재명, 충청서 과반 압승 ... 대세론 날개 펴다

민주당 대전·충남, 세종·충북 경선 54.72% 득표 ... 이낙연에 크게 앞서
“국민과 당원 기대에 맞게 최선 ... 호남지역 경선에서 판세 결정짓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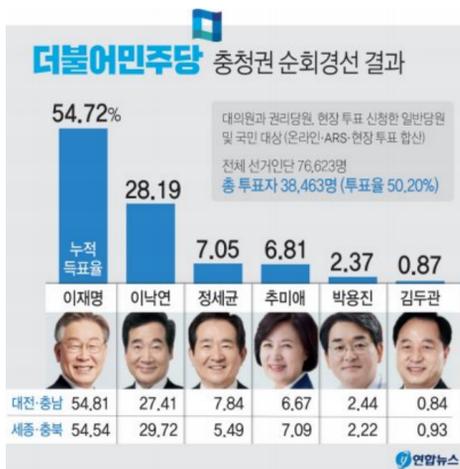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의 충청(대전·충남, 세종·충북)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압승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경선 첫 무대인 충청에서 압승을 거둔 이 지사는 강고한 대세론을 형성하며 대선 티켓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반면, 중원을 무대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한 격차로 일격을 당하면서 전체적인 경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중원의 압승을 바탕으로 다음 주 펼쳐지는 대구·경북(11일), 강원지역 경선(12일)은 물론 1차 선거인단 투표(12일)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세론을 확산시킨 뒤 호남지역 경선에서 사실상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대구·경북 및 강원지역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힌 뒤, 광주·전남(25일)과 전북(26일) 등 호남지역 경선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추석 이후 펼쳐지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종 판세가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5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북 경선 투표 결과, 이재명 지사는 54.54%의 득표율을 기록, 과반 이상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72%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펼쳐진 대전·충남지역 경선 투표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54.81%의 득표율로 2위 이낙연 전 대표(27.41%)에 더블스코어 차이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과반을 넘긴 54.72%를 기록한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28.19%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재명 캠프는 중원에서의 과반 압승 여세를 이어가 결선투표 없이 경선을 마무리하겠다고 고무된 분위기다. 또 당원 투표에서도 압도적 우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대세론이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사 측에서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한 뒤, 호남지역 경선에서 승리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충청지역 경선은 전체적 경선 판세를 그대로 반영했으며 이 지사의 대세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여세를 몰아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지역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세종·충북까지 과반이 넘는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선거인단의 극히 일부만 투표했다. 아직 경선이 안 끝났고 승패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이나 당원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원에서 기대를 걸었던 이낙연 캠프는 상당한 득표율 격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충청지역 경선에서 한 자리 수의 격차로 밀리거나 신승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충청지역 선거인단이 전체 200만의 10%에도 못 미치는 7만6000여 명에 불과,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고 캠프를 다시 추스리고 있다. 여기에 당내 조직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지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이 지사와 한 자리 수 차이를 보인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대구·경북과 강원지역 경선에서 이 지사와의 차이를 좁힌 후, 조직력이 투영된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 호남 지역 경선에서부터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득표가 저조했던 건 사실이지만, 충청은 전체로 따지면 비중이 큰 곳

이 아니다”라며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고 호남에서 바람만 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3위 싸움은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이 앞치락뒤치락 하면서 치열한 양상이다. 대전·충남지역 경선에서는 정 전 총리가 7.84%의 득표율로 3위를, 세종·충북지역 경선에서는 추 전 장관이 7.09%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누적 득표율로는 정 전 총리가 7.05%로 3위를 차지했으며 추 전 장관은 6.81%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박용진 의원이 2.37%의 득표율로 5위, 김두관 의원이 0.87%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추석연휴 최대 8인 모임 가능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가족·친지 모임 최대한 자제를”

광주·전남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첫 걸음이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하고, 모임도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시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라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 소매업은 안심 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며 “안심 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3단계 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도 현재와 같이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등도 3단계 기준과 같다.

이 시장은 “앞으로 한 달간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광주시와 마천가지로 현행 3단계 거리두기를 4주 연장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흥시설 영업은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기존 거리두기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6면
- 손흥민, 도우미 보다 해결사가 되어라 ▶18면
- 한국의 산사를 가다 - 합천 해인사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 중앙정부,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년 3월 개교!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세계적 석학 포함 우수 교수진

국내 최고 수준 장학 혜택

등록금 및 기숙사 전액 지원

연구비, 창업비, 생활경비 지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세계 TOP 10 공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 첫번째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 2021. 9.10.(금) ~ 2021. 9.14.(화) / 100명(학생부종합전형)
정시모집 : 2021.12.30.(목) ~ 2022. 1. 3.(월) / 10명(수능우수자전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센터) T. 061 330 9690~9694 F. 061 333 9626 www.kentech.ac.kr